

“문화전당 개관하면 연극·춤·음악 공동작업 하고파”

컬처 & 피플

루이스 제프리스 바비칸센터 예술감독

런던=박진현 문화선임기자

지난 2006년은 한국 연극 사상 최초로 국립극장의 ‘로미오와 줄리엣’(오페라 연출)이 런던 바비칸 아트센터에 ‘입성’하는 뜻깊은 해였다. 그것도 바비칸 아트센터의 공식 초청을 받아 셰익스피어의 본고장에 진출한 것은 국내 문화계에서는 일대 사건이었다. 예술가들에겐 꿈의 무대인 바비칸 아트센터에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게 된 데에는 루이스 제프리스(57·Louise Jeffreys) 현 바비칸 아트센터 예술감독이 있었다. 지난 2005년 당시 바비칸 센터의 연극담당 연출자였던 그녀는 에딘버러 페스티벌에 출품된 ‘한 여름밤의 꿈’에 ‘꽃혀’ 국립극장에 러브콜을 보낸 것이다. 그녀는 한 해 평균 2194(2013년 기준)개의 프로그램이 공연되는 바비칸 센터의 컨트를 타워로 전임자인 그레이엄 셰필드 감독이 홍콩 서구 문화지구로 자리를 옮기면서 지난 2010년 8월부터 기획과 행정 등을 도맡고 있다. 바비칸 센터는 매년 200여 만명(유료관객 110만 명)이 방문하는 유럽 최대의 복합문화기관으로 트위터 팔로워가 16만 여 명, 웹사이트 방문자는 570만 명에 달한다.

지난 5월 말 런던 도시재생의 성공사례인 바비칸 주거·문화지구를 취재하기 위해 만난 그녀는 이같은 바비칸 센터의 성과에 대해 “한 지방 아래에서 모든 예술을”이라는 모토를 실현한 결과”라고 말했다.

바비칸센터, 한 지방 아래 모든 예술 실현
연 200만명 방문 유럽 최대 복합문화시설
“좋은 콘텐츠 만큼 지역 주민과 소통 중요”

“바비칸 센터는 폐허된 지역을 예술로 되살리기 위해 세워진 거점공간이에요. 그 때문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건물 안에 주민들을 위한 기초예술 공연장과 교육시설, 도서관, 상업시설, 고층아파트 주거시설 등을 설계했어요. 문화생산과 소비, 교육과 상업, 주거 등이 절적인 기능이 화학적인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게 강점이에요.”

그녀의 설명대로 바비칸센터 안에는 런던심포니오케스트라(LSO)의 상주공연장인 바비칸콘서트홀(1950석)과 바비칸극장(1166석), 미술관, 3개 영화관, 7개 컨벤션홀 및 2개 산업전시공간 등이 있다. 또한 이 지구 안에는 길드홀 음악연구원과 바비칸도서관도 들어서 있다.

바비칸센터의 연간 예산은 4천여만 파운드(2013년 기준)로 이중 43%를 런던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지난 2012년에는 연간 예산의 55%를 런던시로부터 받았지만 런던 올림픽에 예산이 쏠리면서 12% 정도 줄어들었다.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녀는 유럽에선 손꼽히는 여성 연출가다. 지난 1978년 영국 맨체스터 대학에서 드라마연출을 전공한 후 실험적인 연극을 무대에 올리는 런던 레퍼토리 씨어터에서 연출가로 첫발을 내딛었다. 이후 영국 국립 오페라 기술크, 독일 뮌헨의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극장의 제작감독을 맡는 등 연극과 오페라 분야에서 예술적 역량을 과시해 주목을 받았다. 1999년 바비칸 센터의 BITE(Barbican International Theatre Events)의 디렉터로 임명되기 전까지 유명 연극원인 노팅엄 플레이하우스에서 연출자로 활동하기도 했



다. 다른 예술감독들과 달리 기술, 행정,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두루 경험을 갖춘 실력파다. 말하자면 멀티형 예술감독인 셈이다.

특히 그녀가 바비칸센터와 첫 인연을 맺게 된 BITE는 한국은 물론, 각국의 최정상급 아티스트, 문화예술기관 등과 협업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오는 10월 완공되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전당)과의 교류도 추진해 볼 만하다. 이에 대해 제프리스 감독은 “지난해 가을, 동료인 니콜라스 케디언(바비칸센터 상무이사)이 광주에서 열린 아시아 문화포럼에 다녀온 후 전당의 비전과 규모, 시설 등에 설명해줘 조금은 알고 있다”면서 “전당이 개관하면 연극과 춤, 음악 분야에서 양국의 예술가들이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추진해 보고 싶다”며 의욕을 내비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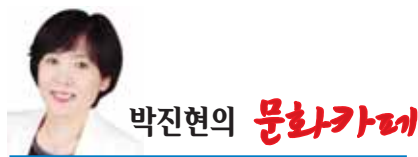
그녀는 “전당이 아시아의 문화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공연이나 콘텐츠 못지 않게 지역 주민(local level)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 예술에 대한 마인드를 가꾸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비칸센터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런던 오케스트라심포니가 저렴한 티켓가격으로 시민들을 만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예요. 한 도시의 문화지수를 높이기 위해선 복합문화기관이 관객들에게 적극 다가가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바비칸센터에서 열린 블루버스터 전시인 ‘디자인 007 : 제임스 본드 스타일 50년’이었다. 이 전시에는 수십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는데 특이한 건 이들 중 90%가 바비칸 센터의 티켓을 한번도 구매한 경험이 없었다. 바비칸 센터가 끊임없이 기존 관객은 물론 젊고 다양한 관객층을 개발하는 데 노력해 온 결과다.

“전당과 같은 복합문화시설은 잠재고객, 미래의 관객을 끌어들이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바비칸 센터) 바라는 건 어린 시절 바비칸 센터에서 처음으로 예술을 경험한 어린이들이 예술가의 꿈을 꾸고 후 아티스트로 성장해 이곳에 돌아와 공연을 하거나 어린이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예술과 교육이 만나는 플랫폼, 바로 바비칸 센터가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jhpark@kwangju.co.kr



평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지난 1988년에 상영된 이탈리아 영화 ‘시네마 천국’을 기억할 것이다. 영화는 주인공인 유명 영화 감독 토토가 고향 마을 극장의 영사기사 알프레도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시작된다. 오랜만에 고향인 시칠리아 섬으로 돌아온 그는 가난했던 어린시절, 아들처럼 자신을 보살펴주고 영화에 대한 꿈을 키워주던 알프레도에 대한 추억을 떠올린다.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는 내내 많이 웃었고 라스트씬에서는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난다. 키스신을 검열하는 신부, 알프레도가 토토를 자전거에 태우고 시

많은 주민들은 마치 이벤트처럼 가슴에 콩나듯 맛보는 문화생활에 갈증을 느껴 60여기 떨어진 전주로 원정관람을 떠났다. 말이 원정관람이지 4인 가족이 영화 한편을 즐기려면 차비와 밥값, 관람료 등으로 10만 원 이상 지불해야 했다. 이쯤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최초의 작은 영화관인 지평선 시네마는 김제시가 5억5000만원, 전라북도 3억5000만원 등 총 10억 원의 비용을 들여 김제 정소면수련관 1층(2개관·총 99석 규모)에 꾸며졌다. 매일 오전 10시~오후 11시까지 5차례 최신 영화를 상

작은 영화관

골길을 달리는 장면, 얼마나 많이 봤는지 대사를 외우는 관객 등 그 당시 시골 극장의 정겨운 모습들이 지금도 생생하다. 특히 두 주인공이 돈이 없어 영화관에 올 수 없는 주민들을 위해 동네 건물을 스크린 삼아 영사기를 돌리던 장면은 감동 그 자체다. 시골 소년 토토가 세계적인 영화감독으로 성장한 건 이 작은 영화관이었따.

지난해 전북 김제에서도 ‘시네마 천국’과 비슷한 마을 극장이 문을 열었다. ‘지평선 시네마’라는 이름의 작은 영화관으로 평소 영화를 구경하기 힘든 주민들을 위해 김제시가 마련한 것이다. 지난 1993년 마을의 마지막 극장이었던 제일극장이 문을 닫은 지 꼭 20년 만이다. ‘영화속’ 시칠리아 섬 주민들이 가난 때문에 극장에 가지 못했다면 김제 주민들은 영화관이 없어 부득이하게 영화와 담을 쌓았다. 물론 극장이 사라진 후 간혹 시청이나 문화단체에서 학교 강당 등을 빌려 흘러간 영화를 틀어주었다. 하지만

영하며 관람료는 5000원으로 도시의 멀티플렉스 상영관보다 저렴한 편이다. 마을에 극장이 생기면서 주민들의 일상에 활기가 넘치게 된 건 물론이다.

사실 김제시처럼 영화관이 사라진 곳은 전국 지자체 중 109개나 된다. 특히 전남의 경우 22개 시·군·구 중 극장이 없는 지역이 무려 19곳이나 된다. 극장은 고사하고 영화 DVD조차 상영할 문화시설이 없는 절대소외 지역도 7곳에 이른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전남은 1인당 연간 영화 관람횟수가 1.72편으로 전국 평균 3.84편(작년 말 기준)의 절반에 불과하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전남도가 오는 2018년까지 예산 190억 원을 투입해 영화관이 없는 19개 시·군에 작은 영화관을 조성하기로 했다. 모쪼록 이들 작은 영화관이 마을 주민들의 문화쉼터이자 사랑방으로 자리잡았으면 좋겠다. 작은 영화관은 문화융성의 작은 시작이다.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광주문예회관 우대 회원 수시 모집

광주문예회관이 정기 회원을 수시로 모집한다. 회관 우대 회원(2인 연회비 8만원)은 시립예술단 및 남도소리 상설무대, 화요예술무대 무료 관람권(2인)을 제공하며 회관 특별 기획공연에 50%할인 혜택도 준다. 또 매일 공연일정표와 소식지 ‘빛고을 문예’도 우송해준다. 교향악단 등 7개 예술단체의 연회비는 1인 1만원~2만5000원, 2인 1만5000원~4만원이며 해당 예술단 공연의 무료 관람권을 증정하고 타 시립예술단체와 화요예술무대, 남도 소리 상설무대 공연 입장권 구매시 40% 할인 혜택을 준다. 문의 062-613-836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저렴한 고급 별장

정남진 별장은?

접근성, 주변 환경, 천혜의 경관이 어울린 고급 수입 목재를 활용한 건축물로 남해안 최고의 별장! 광주에서 50분 거리에 소재한 정남진 별장은 위의 조건을 완벽히 갖춘 곳!

토지 4,900㎡
건물 245㎡
매가 협의

◆ 정남진 장흥, 득량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 선착장과 해수욕장, 바다뷰시, 리조트 등 최고의 위락시설과 어울린 명소에

◆ 캐나디안 수입 목재 건축물(100%)에 수입 철조 등 최고급 자재 및 완벽한 단열, 방음, 방습 및 내부공기 자동 배출 방식의 숨쉬는 별장.

◆ 완벽한 보안시스템 구축.

◆ 정남진 별장은 전원주택이 아닙니다.

전화상담 사절.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 내방 바랍니다.

행운(구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송 창 석
011-642-7777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양덕 유 제 관

급매합니다		
매매가격	매물종류	내용
2,600만원	오피스텔	금년로력세금 7층39㎡ 총72,600만원(공실)
4,000	무권리임대	금년가 전월임대1구1층16㎡ 유동인구 엄청
6,500	이마트전세	광산구도심중 종중이마트2층75㎡ 내인수가능
3,500	대학가상가	나주 대학앞 근방건 주택 대지579㎡
198,600	주택(한옥)	서동 주222종이161㎡ 대지411㎡ 원물 최적
396,200	행원물	광주 롯데앞 물15 보99,000원339만원포함
397,000	충장로5가 주인세대	원물17 보2,200원510보
795,000	대인동상업	대인동상업160㎡ 전보2 물30 보1억7000포함
497,000	대박가토	영암국도변399㎡ 1,053㎡ 일매100만원이상
4억	영향반건물	대인동대로변 상업지 12,230㎡ 건물2층
5억	예술가리	최고지 상업지165㎡주인가주4,000원150보
5억5,000	역세권빌딩	금년가역입구 대지208㎡ 보3,500원388만원
7억5,000	역세권빌딩	대인동 상업지271㎡보 보9,000원450포함
14억3,500	역대로코너	금년가역대196㎡보 보1억 9800포함
24억	역대로코너	중심상업 대지410㎡보2,600㎡보2억4,000포함
3천~10억	임야·농장	화순 정성당앞 국도변 아산·농장 다수 확보

다음카페 즐거운부동산세상을
클릭하면 하루 하루가 살맛납니다



다음카페 즐거운부동산세상을 클릭하면
부동산, 건강, 생활 정보가 가득합니다

하루8,000여명이 복적거리는 정터

여러분들 누구나[무료] 참여해서 좋은 정보 얻어가세요

구합니다

찾는 지역,금액,월세비용이 맞지않아 대기
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습니니다.부동산이라면 뭐든
금액과 지역에 상관 없이 연락주세요
비로 처리하여드리겠습니다

동부소방서4거리(대인동312-1)
☎010-6495-3787/직통062)229-0088

收益 33.3% 호텔 “급매매”

대지 6,600㎡, 건평 2,192㎡
객실 48개, 지하수, 심야전기
2013년 리모델링 완료
최고급 럭셔리 호텔급 시설!
지역 독점상권, 접근성 최고!

– 월매출 8천만원 / 지출 3천만원
– 매출 장부확인 및 계약부조건 가능
– 3년 운영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
– 매가 33억 (용자 15억), 현금 18억
– 가격 절충 불가, 실수요자만 문의 바람

신세계공인중개사사무소

문의전화 010.5188.5515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첨단지구 CGV영화관 옆 건물 3층 근린상가 건물매매

노후보장!
월 수익형!

감정가
18억4천4백만원
매매가 16억

또는 5억
투자하고

매월 월세
300 만원씩
받아 가실분

문/의/전/화
010-2804-0632

경매

영광 백수해안도로부근
대지 10,730㎡
펜션부지적합

감정가 5억4300만원
최저가 5억4300만원

신안 증도면
대지 4,858㎡

영도리도500m거리
펜션부지,계획관리지역
최저가 3억994만원

화순 도곡면 도곡원천영
3.4층 무인숙박시설
대지 2,057㎡
건물 2,332㎡

주변개발호제있음
복층형,실내 고급인테리어

감정가 24억9천만원
최저가 17억4천만원

*이외 다수물건 확보

경·공매전문 이 주원
010-7171-7610